



즉시 배포용: 2017년 2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립공원 방문객이 6% 증가되었다고 발표

2016년에 6,930만 명이 공원을 방문했으며, 이는 2015년보다 390만 명이 증가한 수치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6년에 6,930만 명으로 추산되는 방문객이 뉴욕의 주립공원, 역사 유적지 및 야영지를 방문했으며, 이는 2015년 대비 6% 증가한 것이고, 주지사가 2011년에 취임한 이래 21% 증가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공원들은 관광업 경제의 심장이며, 이러한 수치는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곳곳에서 이용 가능한, 비할 데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가 기회를 체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공원, 역사 유적지 및 야영지를 보존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이번 행정부의 주요 투자들은 새로운 방문객 유치에 극히 중요하며, 저는 뉴욕 주민과 방문객 모두 우리의 공원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체험하도록 권장합니다.”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 커미셔너 **Rose Harv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공원과 역사 유적지는 주립공원 시스템과 야외 활동을 활성화하고 증진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강력한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7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공원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강화시킴에 따라, 더 많은 뉴욕주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공원 방문객 수는 많은 요소에 의해 증가되었으며, 여기에는 [Jones Beach에 있는 역사적 West Bathhouse](#)의 재개장과 [Niagara Falls에 있는 Terrapin Point](#)의 재단장 등 공원 시설에 대한 주요 개선조치, 4학년 학생들에게 공원 입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Connect Kids to Parks](#) 계획, 노동절(Labor Day) 이후에 시행되는 [수영 시즌 확대](#) 및 주립공원 야영장에서의 [기록적인 야간 방문](#), 그리고 여름 내내는 물론이고 늦은 가을까지 이어진 우호적인 날씨가 포함됩니다.

연간 공원 방문객 수는 2011년에 기록한 5,720만 명의 방문객 수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며, 이는 주립공원을 향상시키고, 야외 여가활동 이용 기회를 확대하며, 우리 주의 방대한 관광 및 여가 명소를 홍보하는데 대한 Cuomo 주지사의 전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하에서, 뉴욕은 야외 여가활동 이용 기회를 향상시키고 확대하는 것에 대해 역사적인 전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NY Parks 2020**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2020까지 주립공원에 대한 민간 및 공공 자금 9억 달러를 활용하기로 하는 다년간의 약속입니다. 2018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에는 이 계획을 위한 1억 2,0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주지사는 국내 최대의 다중 용도 주립 트레일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2020년까지 Hudson River Valley Greenway 및 Erie Canalway 트레일들을 완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뉴욕주는 경치가 좋은 풍경을 따라, 역사적인 지역사회를 통과해서 하이킹과 자전거 타기를 즐길 수 있는 750마일의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 3단계에 걸쳐 350마일의 새로운 트레일을 개발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